

상념 사라진 순간 화폭에... 세상은 꽃으로 피어나네

차규선 작가 '화양연화' 전 5월 13일까지 '갤러리 래'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말한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말하라고 하면 꽃피는 봄이 아닐까? 계절의 절정 봄을 맞아 차규선 작가(사진)가 꽃을 주제로 하는 개인전을 갖는다. 5월 13일까지 부산 '갤러리 래'에서 열리는 '화양연화'는 피고지는 꽃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무상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화양연화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즉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때를 말하지만 꽃처럼 피고지는 것에 대한 애뜻함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기도 한다고 차규선 작가는 말한다. "꽃이 아름답게 만개하는 절정기가 있듯 인간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나의 화려한 시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순간일 수도 있죠"

그렇다. 삼라만상 속 인간에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순간은 가장 아름답고도 슬프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으며 완전한 것도 없다. 그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꽃이 피었다 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작가는 꽃의 생성과 소멸

그 안에 담긴 우주적 진리를 화폭 속에 그대로 펼쳐낸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통도사 매화와 니르바나 시리즈 등 불교적 소재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사찰의 문살 무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니르바나는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며 걱정 근심이 없는 열반의 상태를 담아낸다.

"사찰의 문살무늬에는 하늘색 에메랄드, 분홍빛 등 다양한 빛깔과 무늬의 꽃들이 사방으로 퍼져있죠. 이 작품 역시 그런 느낌을 살려 사상으로 꽃이 퍼져나가는 듯한 꽃 이미지를 그려내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림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표현해냅니다. 그림을 시작할 때 굳이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아요. 붓 가는대로 그리다 보면 어떤 형상이 그려지는데 이 순간 상념이 사라지고 무아의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느낌을 니르바나에 담았습니다. 즉 사유와 잡념이 사라진 평온의 상태 명상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찰 여행을 즐기는 작가는 통도사 앞 매화나무를 분청사기 기법으로 표현한 '매화' 시리즈로 탄생시켰다. 도자기 흙을 기본으로 고착 안료 등을 혼합해 캔버스 표면에 발라 작업하는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은 색다른 질감을 표현 그림의 예술 세계를



니르바나. 걱정 근심이 사라진 평온의 상태를 보여준다.

사찰 문살 무늬 이미지 '니르바나'로 걱정 근심 사라진 마음의 평안 표현 분청사기 기법의 통도사 매화 등 다양한 꽃 그림으로 삶의 의미 전제



차규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통도사 매화와 니르바나 시리즈 등 불교적 소재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작품은 통도사 매화를 분청사기 기법으로 표현했다.

표현해낸다. 이렇게 완성된 매화는 관람객들에게 봄의 향기를 물씬 전해줄 것이다.

작가가 이렇듯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불교적 색채를 가미하는 것은 경주에서 자란 그의 성장배경 덕분이다. "작가가 어디에서 성장했느냐는 그의 작품 세계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죠. 제가 자란 곳이 천년고도 경주이다 보니 그곳의 자연과 불교문화는 저한테 그대로 흡수되었고 제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내듯이 제 취향 성향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렵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가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풍경을 빠른 필치로 대상화해 화폭 위로 옮긴다. 그렇게 자연의 이미지를 명상적으로 포착해내면 기억은 다시 현재가 되어 한 폭의 예술로 펼쳐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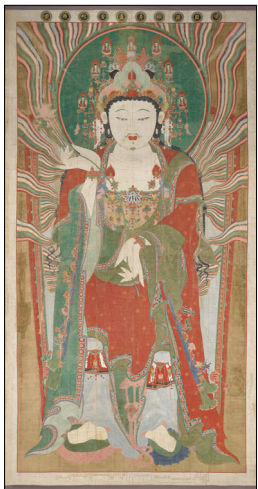
오로지 그림 그리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작가는 세속적 욕망을 쫓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한 예술적 표현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여긴다.

"현실에 살면서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명예나 부에 얽매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해 저의 존재를 느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림 작업은 저에게 있어 구도의 길과 같습니다."

한편, 차규선 작가는 분청사기 기법을 응용한 독특한 화법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표현해 오고 있다. 그는 예술적 감흥을 함축적으로 표현 생동감과 역동성이 있는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다. (051)995-2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통도사성보박물관 영천 수도사 괘불전

보물 제1271호로 1704년에 조성



영천 수도사 괘불.

통도사성보박물관은 32회 괘불탱 특별전으로 영천 수도사 괘불탱을 10월20일까지 전시한다. 보물 제1271호로 지정된 '수도사 괘불'은 1704년에 조성되었으며 삼베에 채색되어 있다. 주존은 연꽃을 들고 보관과 각종 영락 등으로 장엄된 형상이다. 화면 최상단에 '원만보신노사나불(圓滿報身盧舍那佛)'이라는 한자가 한자씩 둥근 원안에 적혀있어 존명이 '원만보신노사나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괘불의 화기에 '세존괘불영상(世尊掛佛影像)'이란 화명이 기록되어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연꽃을 들고 보관 등으로 장엄한 보살형의 도상은 화염경의 화신으로 출현한 석가모니불의 도상과 영회시중으로 상징되는 선종의 석가모니불의 도상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도상을 노사나괘불로 존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삼신불 사상의 하나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불교의 종파가 융합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화기를 통해 이 불화는 수화승 인문 스

님 등 5명의 화승이 참여해 제작했을 수 있다. 인문 스님은 수도사 괘불(1704)을 비롯해 함양 벽송사 지장시왕탱(1708), 충남청양 장곡사 아미타불탱(1708), 영국사 석가모니 불탱(1709) 등 네 점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모두 수화승을 맡고 있어 인지도와 역량을 갖춘 화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문 스님의 작품은 비록 현존 작품 수가 적고 제작시기도 5년의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네 점 모두 삼베라는 공품의 재질에 제작되었으며 존형이나 채색, 장엄 요소 등에서 인문 스님은 간결하고 담백한 화풍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정혜숙 기자

창사25주년 특별생방송 '참 좋은 오늘...'

5월1일 9시간 생방송으로 진행

불교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9시간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한다. 개국 기념일인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원영 스님, 법찬 스님, 월호 스님, 성진 스님, 배우 김혜옥, 강부자씨 등 불교방송 전현역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출연해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신행담을 들려보는 '내인생의 불교방송', 25년간 성원해준 청취자들에게 감사와 축원을 전하는 '불자여러분, 고맙습니다.' 분사와 각지방사를 연결하는 이원생방송 'BBS는 지금' 등 다양한 내용으로 9시간을 꾸민다.

이날 방송에서는 불교방송과 인연 깊은

불교계와 정재계, 방송계 인사들이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25주년을 축하하고 불교방송의 새로운 발원인 삼탄탄한 TV와 라디오 방송포교 터전 마련을 위한 사옥 건립 △나청지역 해소로 통한 가정권 전국 확대 △라디오 송신소, 중계소 건립에 불자들이 당당한 방송포교사로서 동참을 권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서울경기 지역 라디오방송(FM101.9MHz)으로 출발하여 2015년 현재 전국 7개 네트워크, 13개의 라디오 주파수를 운영하는 지상파 라디오방송과 2008년 개국한 BBS불교방송TV를 통해 방송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02)705-5513 정혜숙 기자



불교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9시간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한다.

"청소년, '영화' 속에서 꿈을 펼쳐라"

성불암, 5월 6일 무료영화학교 '밀짚모자' 개교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청소년은 사회에서 방치되기 쉽다. 이에 서울의 한 사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영화 학교를 개교해 눈길을 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성불암(주지 법찬)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청소년영화학교 '밀짚모자' 후원에 나선다. 5월 6일 오후 2시 성불암에서 개교식을 맞는 영화학교는 불교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를 제작중인 김행수 영화감독이 운영을 맡았다.

법찬 스님은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중생들을 전부 구제할 때까지 부처가 되길 마다하셨는데, 우리도 당장 불행한 청소년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며 "더 나은 청소년 문화가 조성된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행수 감독은 "청소년 문제는 선후를 따질 게 아니라는 법찬 스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영화학교를 개교할 수 있었다"며 "영화 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과 정체성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업료가 전액 무료인 밀짚모자 영화학교 교정은 1년이다. 청소년들은 3개월 간 영화 이론을 공부한 후에 자신들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현장에서 영화 제작에 들어가며, 연말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 영화 시사회 및 청소년 영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행수 영화감독 운영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꿈 찾아주고자"

한편 법찬 스님은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실 제공뿐만 아니라 영화 학교 교문을 열어 적극 후원할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박사와 대전대학교 남미에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나선다. 영화학교는 현재 후원회를 모집 중에 있으며, 후원자는 '밀짚모자 청소년 영화제' 조직 위원회로 위촉될 예정이다. 010-3262-2830 박아름 수습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